

흘려 바치라

혹시 최근에 눈물을 흘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흘려보셨다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나요? 왜 눈물을 흘리셨나요? 필자는 얼마 전에 교회 주일대예배 때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고이기에 남몰래 훔친 눈물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흐르게 되어 닦은 눈물이었습니다.

이유는 그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부른 찬송가 ‘나의 사랑하는 책’(234장)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보기에든 이 찬송은 그다지 슬픈 내용의 가사를 담고 있지는 않았지만, 필자에게는 어릴 적 옛날을 회상하기에 충분한 가사를 담고 있었던 까닭에, 필자도 모르게 그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줄줄 흘려 보이곤 말았습니다. 3절을 지나고 있었을 때는 그야말로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3)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들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랬습니다. 필자는 어릴 적 필자의 어머님께서 흘리셨던 눈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없었다면 이처럼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필자의 어머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이 거쳐 오신 인생은 그야말로 눈물로 얼룩진 인생이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도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을 위한 눈물이었다면 두 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어머님의 눈물을 생각하자니 문득 앞선 질문에 또 하나의 질문을 더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다면 누구 때문이었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자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절친한 친구가 갑자기 생각나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리워져서, 장례식장이나 혹은 결혼식장에서, 사랑하는 자식들의 속 깊은 모습을 보았을 때, 가족들의 병수발이나 그 밖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을 때, 아들을 군대에 보내거나 먼 타국에 보낼 때 등이 떠오릅니다. 모두가 ‘사랑’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안성맞춤인 유행가가 있다면 아마도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이 무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먼 훗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비단 사랑이나 헤어짐 때문에 있는 것만은 아닐 것이라 봅니다. 예를 들면 맵기로 유명한 청양고추를 먹었을 때나,

금메달을 목에 걸고 애국가를 부르고 있는 국가대표선수를 보았을 때나,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는 아픔을 겪었을 때나, 치과에서 치아의 신경치료를 받았을 때나, 슬픈 영화나 감동적인 책을 보았을 때 등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유는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득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을까라는 또 다른 의문이 듭니다. 해서 성경을 찾아보니 놀랍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었습니다(눅 19:41, 요 11:35, 히 05:07). 여기서 예수님의 눈물은 모두가 우리 때문이었음은 두 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왜 우리에게까지 눈물을 붙이셔서 이런저런 이유에서 흘리게 하셨을까요? 재미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모든 눈물의 공통점(무엇 때문에 흘리는가에 대한)을 발견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유는 아마도 우리의 마음을 겉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눈물을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눈물은 마음과 생각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눈물도 거짓된 눈물이 있을 수 있고 참된 눈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눈물은 마음의 울곤은 표현으로서, 곧 눈물은 대개 마음을 외부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증거로 삼을 수 있기에 충분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식적인 눈물, 마음은 저 멀리 있는데 마치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호도(糊塗)

塗)하기 위하여 흘리는 눈물, 남을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흐르는 눈물 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눈물도 이처럼 이중성(二重性)을 갖고 있다고 볼 요량이면, 앞선 필자의 생각을 틀린 것이 되고야 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붙여두신 이유를 찾기란 그다지 녹록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유이다 싶은 것으로 그저 호흡하는 동물들 모두의 신진대사[新陳代謝, 물질대사(物質代謝)]로 덧붙여 두셨을 것이라는 이유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마땅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녕 그럴까요? 이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우리에게 눈물을 가장 많이 보였던 사람 둘을 꼽으라면 필자는 주저 없이 다윗(David, ?-B.C.961)왕과 예레미야(Jeremiah, B.C.650?-?) 선지자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의 기록에서 볼 때, 다윗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위해 각각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점은 모두의 눈물이 죄에 대한 ‘회개’(悔改)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눈물을 성경은 각각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 이다”(시 06:06)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시 39:12)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시 42:03)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시 56:08)

“나는 재를 양식 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시 102:09)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
이다”(시 116:08)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시
119:136)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 126:05)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렐 09:01)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렐 09:18)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 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렐 13:17)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렐 14:17)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네 일에 샅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렐 31:16)

지금까지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물을
만드셔서 그것도 흘릴 수 있도록 해두셨는가에 대한 해답은, 바로보기에
우리의 것도 아닌 눈물을 마치 우리의 것인 양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구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곧 눈물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붙여두

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다면 그 해를 어렵지 않게 그것도 쉽고도 넉넉하게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사전에서는 눈물을 “눈알 바깥 면의 위에 있는 눈물샘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말한다. 눈물은 늘 조금씩 나와 눈을 축이거나 이물질을 씻어 내는데, 자극이나 감동을 받으면 더 많이 나온다”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물은 2가지의 격(格)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자극에 의한 분비물로서의 눈물’이고, 다른 하나는 ‘감동의 눈물’이 그것입니다.

필자가 보기에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이유가 어찌되었든 모두가 ‘분비물로서의 눈물’이라고 보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예외로서 눈물이 하나님의 기쁨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비물로서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흘려야 하고 또한 흘릴 수밖에 없는 ‘마땅한 눈물’(감동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앞서 필자 나름 눈물은 2가지의 격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한 눈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눈물(마땅한 눈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보실 수 있는 우리의 눈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눈물은 다윗과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과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한 ‘감사의 눈물’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땅한 눈물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속죄제(贖罪祭, Sin Offering, *Hatat*, חַטָּאת)를 위한 그리고 화목제(和睦祭, Peace Offering, *Shelamin*, שְׁלָמִין)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는 셈입니다.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면서 흘리는 눈물,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씻을 수 없는 죄를 속죄하고자 마음 문을 열어놓고 흘리는 눈물,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 세상의 조소(嘲笑)와 지탄(指彈)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교회와 크리스천 된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는 눈물,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식들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 제식대로 세상과 벗어나 살고 있는 자식들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 명색이 신앙의 선대로서 후세들에게 바른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기 못했기에 흘리는 눈물, 소외된 이웃들의 핏 값으로 자신만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전전긍긍했던 지난날을 돌이켜 흘리는 눈물, 세상 앞에 바로서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 크리스천으로서의 사명을 내팽개치고 이리저리 제멋대로 휩쓸려 지냈던 지난날의 회한(悔恨)을 품고 흘리는 눈물, 기복(祈福)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자신의 발아래 두고자 기를 쓰고 애썼던 사실들을 돌아보아 흘리는 눈물 등은 모두 '회개의 눈물'일 것입니다. '속죄제'의 희생제물로서 말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공로를 생각하고 흘리는 눈물, 이 땅위에서 사는 동안 어디에 비할 데 없는 고난(苦難)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흘리는 눈물, 탕자와 같았던 자식이 하나님 품에 안긴 모습을 보며 흘리는 눈물, 사랑했던 친구가 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을 지켜보며 흘리는 눈물, 이 땅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눈을 감을 때

흘리는 눈물, 지금까지의 신앙을 울곧게 간직할 수 있도록 눈물로서 기도해 주신 선대들을 기억하고 흘리는 눈물, 자라나는 후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력무력 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흘리는 눈물 등은 모두가 ‘감사의 눈물’일 것입니다. ‘화목제’의 희생제물로서 말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그 기쁨을 찾으시고자 다만 우리에게 맡겨두신 눈물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이 눈물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어김없이 그대로 흘러 드려야합니다. 왜냐하면 희생제물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번(燔)] 바치라’고 요구하신 것이라면, 눈물 또한 이와 다름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산(澆)] 바치라’고 요구하신 것으로 보아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앞서 이 같은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눈물을 흘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이 질문을 울곧게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입니다.

“혹시 최근에 속죄제의 희생제물로서 눈물을 흘려 바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최근에 화목제의 희생제물로서 눈물을 흘려 바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눈물은 말라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언감생심 말라버린 눈물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설령 눈물이 침샘처럼 그나마 조금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안타깝고 걱정되어서 눈물을 흘린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아무리 떠올려보려고 해도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은 빌어먹을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모두가 죄에 빌어먹고 있었던 우리의

교만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흘리고 있었던, 눈물은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분비물'이었습니다. 그도 더럽고 추하기 그지없는 분비물이었습니다. 감성을 자극하거나, 이성을 자극하거나, 감동이 있거나, 슬픔과 기쁨이 있거나 할 때, 흘리는 그런 말 그대로의 분비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쾌악한 눈물은, 보다 정확히는 분비물보다 더욱 더럽고 추악한 '분비물 중의 분비물'은 그 귀한 회개의 눈물이나 감사의 눈물을 내팽개친 채, 오로지 자신들의 기복(祈福)을 위해 흘리는 '구함의 눈물'일 것입니다. 이 경우 '구함의 눈물'의 본성은 '교만'(驕慢)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되레 우리에게 바치시도록 요구하고 있는 희생제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교만은 구함으로서 나타나고,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과정을 거쳐, 끝내는 패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추상같은 사실을 이미 앞서 본 바 있습니다.

'회개'와 '감사'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한 몸'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 뒤에 '죄 사함'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회개하는 마음(죄지움에 대한)속에는 반드시 감사의 마음(죄를 사해주신 것에 대한)이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죄 사함이 뒤따라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회개 없는 감사가 있을 수 없고, 죄 없는 죄 사함이 있을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앞선 유행가는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가 무어나고 물으신다면 감사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먼 훗날(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서로(회개와 감사)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요”

그런데 앞서 잠깐 살핀 기복(祈福)에 기한 ‘구함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도 없고 ‘감사의 눈물’도 없습니다. 곧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없는 구함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눈물이 아니라 분비물로서의 눈물 그 자체입니다. 이 경우 만약 구함이 고난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이는 달리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기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더해드린 것 없이 무조건 구하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를 나가는 것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도, 기도하는 이유도, 찬송을 드리는 이유도, 헌금을 하는 것도, 각양의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모두가 구하기 위한 것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때마다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을 희생제물로 바치고 있는 경우는 예외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구함의 본질은 마땅히 고난에 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나면 경건해지고, 엄숙해지며, 평안해지고, 영육 간에 새로운 힘이 솟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구함의 눈물’을 흘리고 나면 마치 모든 것을 다 채운 것처럼 스트레스가 확 풀리게 되고, 기뻐서 날뛰게 되고, 박수치게 되며, 하늘 높이 손을 들고 소리치게 되고, 마음이 뜻 모르게 들쭉거리기 십상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다 채웠고 다 담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

“주실 줄 믿습니다 ...”

“다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허락해주시고 ...”

“드러내게 해주시고, 귀하게 사용해주시고, 보내주시고 ...”

“30배, 60배, 100배 아니 수백 배로 채워주시고”

“감당케 해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

“하루속히, 시시때때로, 우리 눈앞에, 한결같이 ...”

뭘 말인가요? 누구를 위해서 말입니까? 회개와 감사의 눈물은 어디에 있나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빛(채무)이 있었기에 이처럼 쿵 뵈듯 들들뵈고 있나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당연히 갖다 바쳐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 하나님께서 구함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어쩔 요량이었나요? 구함에 부르짖다가 또 부르짖다가 흘린 눈물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계셨던 눈물이라고 생각하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 두신 눈물이었나요? 만약 입장을 바꿔 저들이 하나님 입장이었다면 구함에 응답했을 것이라 여기고 있나요? 왜요? 무엇 때문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을 자기 발 앞에 두려고 하는 교만이자 하나님을 우습게보고 대적하고자 하는 폐악한 심사의 발로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보자보자 하니 할아버지 상투 잡고 혼든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 말과 무엇이 다르지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모조리 다 채워주신다면 모두를 어디에 어떤 곳에 사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었습니까?

앞서 필자가 ‘구함의 눈물’을 ‘분비물 중의 분비물’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모두가 이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로 경계해야 할 것은 ‘구함의 눈물’ 한 중심에 우뚝 서있을 수도 있는(‘구함의 눈물’로 이끌고자 하는) 우리 ‘목회자의 인도(引導)’입니다.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등한시 하고 있는 목회자는 필경 이 같은 구함의 선봉에 서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목회자는 교만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죄를 죄 뭉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언감생심 하나님의 희생제물 만을 되레 요구하고 있는 실로 패악하기 그지없는 이리[낭(狼)]무리의 목자라고 보아 마땅할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분비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고 계시는 눈물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 눈물로서 그 눈물을 희생제물 삼아 하루속히 흘려 바칠 것을 참고 인내하시는 중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내의 끝이 다하지 않도록 후미진 쪽방 한 귀퉁이에서 은밀히 그도 잠잠하게 흐느끼며 속죄제단(贖罪祭壇)을 쌓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로서 목회자는 물론 크리스천 된 우리 모두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경우 눈물을 흘려야 할 장소는 반드시 후미진 곳이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음침한 곳이라야 할 것입니다. 그도 시끄러운 곳이어서는 안 됩니다. 낮보다는 밤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혼자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이 본래 분비물의 분비물보다도 더욱 더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죽여도 시원치 않을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빌미삼아 패악무도하게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불철주야 쥐새끼처럼 주인의 곡간만을 킁킁거리며 뒤지고 있었습니

다. 허기사 한때 그 주인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괴수의 수괴였음에야 더 일러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